

## 글로벌 MICE 도시 고양시, 평화통일 회의 지원으로 평화회의 선도도시로 발돋움

고양시는 지난 7월, 남북교류 조례를 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반기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재점검하고, 남북교류 협력 증진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개최하는 국제·국내 회의, 학술연구에 따른 회의 때 지역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70%를 지원하는 평화회의 촉진도시 사업을 심의했다.

글 진종현 사진 평화미래정책관



제2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평화통일 회의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관련 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평화 콘퍼런스 도시로의 브랜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고양시에서 평화회의 개최 시 시설사용료 70% 지원



글로벌 MICE 도시 고양시가 킨텍스(KINTEX), 엠블(MVL) 호텔 등 고양시 내에서 개최하는 평화통일 관련 회의를 지원해 평화회의 선도도시로 발돋움한다.

고양시는 남북교류협력 증진,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 등의 평화회의를 시 소재 시설에서 개최하는 경우 회의실, 주차장, 부대장비 사용료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평화회의 촉진도시 사업'을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추진한다.

평화회의의 촉진도시 사업 추진을 통해 평화 관련 회의를 유치하고 집적화하는 등 평화거점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남북통일 이후 이동을 위해 단순히 거쳐 가는 도시가 아닌 평화통일경제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평화회의의 시설사용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지원 안내는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031-8075-3538)으로 문의하면 된다.

### 평화거점도시, 다양한 평화정책 사업을 발굴 및 추진



고양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51억 원을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 7월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개정해 남북의 교류협력은 물론 평화기반 조성사업까지 기금의 용도를 확대했다. 특히 킨텍스 일대 210만 평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돼있는 고양시의 평화회의의 촉진사업은 평화경제와 통일 기반 활동을 촉진하는 매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양시는 100만 거대 접경도시로서 풍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평화경제특구 유치, DMZ 관광 출발지, 남북 농축산·화훼교류 사업을 추진하며 일자리 창출과 평화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엠블호텔고양  
2 킨텍스  
3 제11회 고양시정포럼



### Tip

#### '평화'가 가져오는 '미래'를 '상상'하는 평화미래도시 고양시에서 평화회의 개최를 지원해 드립니다



- 1 신청 남북교류협력 증진,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국제 또는 국내회의, 학술연구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누구나
- 2 기간 2019. 8 ~ 2019. 12
- 3 지원 고양시 소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회의실, 주차장, 부대장비 사용료의 70% 범위 이내
- 4 문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평화협력팀(031-8075-3538/080060@korea.kr)

※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검색